

아니며, 할인이 적용되는 시간도 Bell의 오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보다 적은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이다.

Bell Canada는 어제 AT&T Canada의 발언을 인용하여 대부분의 주거 고객이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전화를 많이 사용하며, 그렇기 때문에 저녁과 주말의 균일요금 계획은 주거고객이 많은 요금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ell과 AT&T는 또한 Sprint의 『by-the-second billing』이 단지 최초 1분 후에만 적용되며, 저녁과 주말에는 Sprint의 요금이 더 더 비싸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장거리통신 시장의 요금경쟁 가속화는 우리나라 통신산업에 상당한 시사점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외와 국제부문에서 국내 사업자간 초기 단계의 요금경쟁을 겪고 있다. 통신시장개방에 따라 오랜 경험을 축적한 외국의 통신사업자들이 시외 및 국제부문의 중계시장과 재판매서비스 시장에 뛰어들면 심각한 요금전쟁에 따른 기업간 생존경쟁이 시작될 것이며, 따라서 국내의 통신사업자들은 이에 대비하여 차등화된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 혁)

콜롬비아, 장거리 및 국제통신 서비스 체제 변화

최근까지 콜롬비아 통신시장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국영독점 통신회사인 Telecom이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거리 및 국제전화 사업의 자유화에 관한 것이었다. 콜롬비아 정부는 당초 1997년 1월과 1998년 1월에 각각 자유화할 예정이었던 장거리 및 국제서비스에 대해 1996년 동시에 자유화하기로 결정하고, 1996년 1월 15일부터 1996년 8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1996년 3/4분기에 사업자 경매 입찰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MOC 장관과 Telecom 회장의 사퇴, Telecom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로 계획이 계속 지연되어 왔다.

1998년 1월 22일 콜롬비아의 통신규제기관인 CRT(Comision de Regulacion de

Telecomunicaciones)는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장거리 및 국제부문의 사업을 허가하였고, 이에 따라 국영기업인 Telecom의 독점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CRT는 보고타(Bogota)시 소유의 콜롬비아 최대 시내전화사업자인 ETB(Empresa de Telecomunicaciones de Bogota)에게 장거리 및 국제서비스 사업을 허가하였다.

이러한 경쟁은 요금인하를 선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CRT에 의해 도입된 국가 통신규제체계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최초 사업연도에 1997년 Telecom 요금의 20%까지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기 때문이다.

ETB의 경영자인 Sergio Regueros는 이러한 결정이 장거리 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보장하는 필수불가결한 조치임을 언급했다. ETB는 사업허가에 대해 1억 5,000만 달러를 지불했고, 새로운 장거리 및 국제서비스는 6개월 이내에 운영되며 기반투자에 1억 5,000만달러 이상의 자금이 투자될 것임을 발표했다.

새로운 장거리서비스 제공자는 그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5만회선 이상의 기존의 전화회선과 모든 시내망을 접속하여야 한다. 부가적으로 시내전화사업자는 최소한 연간 4억분 이상의 장거리 트래픽을 가지는 국제전화망 사업자와 제휴를 형성해야 한다. ETB는 아직까지 국제사업자와 제휴를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추진 과정에서 회사의 50%를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TB는 2월달에 ETB의 판매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노력할 것이며, 장거리전화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요구되는 4억분 이상의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구매자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콜롬비아의 통신시장은 현재 커다란 과도기의 상태에 있다. 중남미 국가 중 특히하게 국영기업을 민영화 대신 자유화를 선택한 콜롬비아는 시장이 아직까지 완전히 개방되지 않아 아직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셀룰러 시장은 1994년에 자유화를 시작하였으나 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PCS에 대한 면허도 빨라야 1999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콜롬비아의 신규사업자 선정은 국내사업자를 포함한 해외 컨소시엄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이 이에 참여할 수 있다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김 사 혁)